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신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식물이미지를 통한 자아표현 연구

- 본인작품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허 희 영

식물이미지를 통한 자아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신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허 희 영

인 준 서

허희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현대인의 자아는 사회에 가려져 의미 없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자아는 주체적으로 존재할 때 그 의미가 빛을 발하며 개개인이 존재 자체로서 의미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이에 연구자는 가려진 자아의 의미를 식물 이미지를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자아를 찾기 위한 과정과 이를 통한 표현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식물은 숲 속에서 상생과 공존을 반복하며 인간에게 아름다운 공존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을 ‘영(靈)’의 이미지로 인식하고 인간과 관계를 맺고 치유의 작업을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작품 속에 식물과 인간의 대화의 공간을 표현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생명력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공간의 생명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치유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존재하며 인간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자아를 찾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현대사회에서의 고립감으로 인한 소외의 발견을 시작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능동적인 행위인 연민과 공감으로 자아를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자아표현을 작품에 이미지화하기 위해 기억 이미지를 끌어 들여 연구자가 경험한 식물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 과정을 토대로 식물 이미지를 독창적 표현으로 만들어 내어 본인 작품의 이미지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식물이미지의 공존과 치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나타나는 감정 작용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과거의 기억을 독창적 식물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고 소외를 극복하여 일상을 의미 있게 바라본다. 앞으로 다양한 표현방법을 찾아 표현할 것이며 본 연구자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식물 이미지의 의미 및 내용	3
1) 공존과 치유	3
2) 고화(古畵)에서 나타난 식물	8
2. 자아를 찾기 위한 과정과 표현	15
1) 기억 속 이미지	15
2) 타인과 자아의 감정 작용	16
3. 작품의 조형적 특성 및 연구	21
1) 식물의 조형적 특성 및 연구	21
2) 중첩 효과에 따른 공간감	26
III. 결론	31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1> <너와 함께해서 좋아>, 장지에 채색, 45.2x37.7cm, 2019..... 8
- <작품2> <좋아서 II> 일부분, 장지에 채색, 180x53cm, 2019..... 10
- <작품3> <위로>, 순지에 채색, 130x65cm, 2018..... 12
- <작품4> <좁은 공간 속에서>, 장지에 채색, 20×20cm, 2018..... 14
- <작품5> <눈길 닿는 대로2>, 장지에 채색, 97.0×130.3cm, 2018..... 22
- <작품6> <좋아서>, 장지에 채색, 100×80.3cm, 2019..... 23
- <작품7> <바람소리가 날 위로 한다.>, 장지에 채색, 130x70cm, 2019..... 24
- <작품8> <내 품에 안겨>, 장지에 채색, 100x80cm, 2019..... 26
- <작품9> <어느날 I>, 장지에 혼합재료, 116.8x91.0cm, 2017..... 27
- <작품10> <봄의 시작>, 장지에 채색, 130.3x97.0cm, 2019..... 28
- <작품11> <좁은 공간을 나와서>, 장지에 채색, 72.7x181.8cm, 2019..... 29

도 판 목 차

- [도판1] 신사임당<초충도> 8폭 중 ‘양귀비와 도마뱀, 종이에 채색……………8
32.8x28.0cm, 16세기 초, 국립중앙박물관
- [도판2] 작가미상,<화훼도>중 제1폭, 종이에 채색, 54×65cm,…………… 9
19세기 개인소장
- [도판3] 오가타 고린,<추초도(秋草圖)>, 1730x1541cm, 18세기…………… 11
suntory 미술관 소장
- [도판4] 구스타프 클림트 <해바라기가 있는 코티지 가든>…………… 13
캔버스에 유채, 1010x110cm,1907, 벨베데레 궁전 소장
- [도판5] 구스타프 클림트 <양귀비꽃 들판>, 캔버스에 유채…………… 13
110x110cm, 1907, 빈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 소장

I. 서론

고도로 발달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인의 자아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에 가려져 있는 존재가 되어왔다. 근래 들어 자신의 자아를 찾아내고 드러내려는 사회적 풍조가 보이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하려는 현대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는 현대인들의 이러한 타인과의 상호 작용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치유 받고자 한다. 이러한 감정은 공감과 연민으로 나타나며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져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의 이미지를 가진 식물을 통해 자아를 표현한다. 여기에서 식물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존재로 과거의 기억과 상상, 감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러한 이미지와 자아의 커뮤니케이션은 타인과 자아를 치유하면서 감정을 경험하고 기억을 상상하게 만들어 과거를 되짚어 보게 한다. 식물로 공간을 표현함으로써 숨어 있는 자아를 찾고, 자아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한다. 의미 없이 지나치던 공간의 아름다움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론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식물의 이미지가 본인의 자아표현과 어떤 연관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자아표현을 위한 타인과의 관계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자아의 치유와 실현을 보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식물이미지를 통해 타인과 공존하는 자아표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선 식물의 공존과 치유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본다.

식물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공존하고 있으며 우리를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화의 화면에서 식물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리고 조선시대 민화, 일본 오가타 고린의 장식화, 클림트의 풍경화를 통

해 서술하고자 한다.

자아를 찾기 위한 표현 방법으로 첫 번째는 기억이 가지고 있는 힘과 기억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기억의 이미지가 자아표현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본다. 두 번째는 현대의 표준화된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공감과 감정 작용인 연민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그것들이 자아표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하려 한다. 앞에 설명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한 작품을 제시하여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설명한 식물 이미지와 자아를 표현한 작품을 연구하며 앞으로의 작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II. 본 론

1. 식물의 의미 및 내용

1) 공존과 치유

식물은 약 4억년 전에서 4.5억년 전에 유기체 중 최초로 바다에서 육지로 진출했다. 진화는 계속 진행되어 식물은 지구상에 살아 있는 유기체 중 99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부산물로써 산소를 소비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이는 인간이라는 생명체와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인간 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소의 소비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톰 하트만(Thom Hortman, 1951)¹⁾은 이렇게 설명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이유는, 식물이 햇빛을 모아서 저장할 수 있었고 그 밖에 생명체가 그 식물을 먹은 후 그 햇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몸에 동력을 공급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식물처럼 햇빛, 물, 공기로부터 직접 세포 조직을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식물에 의지하며 공존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인간은 오랜 과거부터 식물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 정원의 형태로 식물을 재배해왔다.²⁾ 그 예로, 고대 로마제국 시기, 정원은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유럽의 16세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하였으며, 1872년 이후에는 자연으로 확대된 공원과 같은 형태로 나타게 된다.

1) 톰하트만은 진보주의자로 세계적 라디오 Tv토크쇼 진행자다. 그는 문화, 환경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여러 방면의 글을 써왔다. 환경학과 인류학을 접목시킨 『마지막 시간들 the last hours of ancient sunlight』은 그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하다.

2) 팸 몽고메리 박준식 역, 『치유자 식물』 산티, 2015, p.68

즉 인류는 생존을 위해 공원과 정원의 형태로 식물과 공존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식물과 인간과의 공존 방식에 대한 노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식물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자연관은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차이가 존재해 왔다. 서양의 자연관은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 중심적 공존이었다면 동양의 자연관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보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하였다. 서양은 건물에 자연을 재현했다면 동양은 재현이 아닌 자연 속에 건물을 가져온다.³⁾ 연구자는 재현을 통한 공존 방식보다는 재현이 아닌 그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동양사상의 자연관은 연구자의 작업 배경이 된다. 본 연구는 자연물의 이미지가 소재가 되기 때문에, 더욱 자연에 대한 존재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자연을 경험하고 관찰하는 행위가 작업의 출발점이 되었다.

자연에서 식물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싸우지 않는다. 식물의 세계는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권력이 존재한다. 그 속에서 타협하여 상생하고 공존한다. 예를 들면 잔디와 잡초는 표면상으로 보기에 서로 땅을 두고 치열한 경쟁 상황처럼 보인다. 그러나 땅의 이면을 본다면 절묘한 타협을 발견 할 수 있다. 잡초의 뿌리는 촘촘한 잔디 뿌리 아래층에서 길게 뻗어 산소와 수분을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 식물세계 속에서는 절대적 강자도 없지만 절대적인 약자도 없다. 즉 절대적 권력의 부재로 식물세계는 평화롭고 풍요로워지게 하는 것이다.⁴⁾

평화롭고 풍요로운 식물세계 숲은 셀 수없이 많은 풀들과 큰 나무, 작은 나무, 꽃, 많은 동물로 이루어져 있다. 숲을 자세히 보면, 더 작고 미미한 것들이 함께 상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작고 큰 나무에서 자라나는 버섯들, 미생물 그리고 숲에서 더 나아가 도시에서 발견되는 도로 건물 주위에 자라나는 잡초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주목 받지 않지만 숲의 생태계 속 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지키며 필수불가결한

3) 박중환, 『식물 인문학』, 한길사, 2014, pp.33-34

4) 박중환, 『식물 인문학』, 한길사, 2014, p.91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러한 숲은 인간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사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왔다. 그 속에서 개개의 인간은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필수불가결한 일을 해내고 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상생보다는 경쟁을 통한 약육강식의 삶에 더 가깝다. 약한 자는 강자의 먹이가 되고, 공존보다는 개인의 독식 유리해졌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 경쟁과 물질만능주의라는 현상을 낳았다. 숲이 동식물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도 모두가 상생하고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식물의 상생공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식물 이미지를 화면에 표현함으로써 현대의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간 삶을 반영하는 소재로 등장시키고자 하였다. 작가는 식물의 상생 공존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라고 작품에서 말해주고자 한다. 작품 속에서 식물이미지는 약자와 강자의 구분 없이 어우러져 같은 공간을 즐기며 살아간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작품 속 공간을 편안하게 느끼며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물은 인간 사회에서 ‘영(靈)’이라는 역할을 맡으며, 오랜 세월 중요하게 인식되어져 왔다.⁶⁾ ‘영(靈)’은 에너지 또는 전통적으로 ‘기(氣)’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식물의 영은 생명력의 원천으로서 인간의 생존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어져 왔다. 식물은 인간에게 영을 통한 치유 작업을 한다. 식물이 우리에게 치유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깊은 관계를 발전 시켜야 한다. 식물은 우리 주변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해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발달된 문명은 현대인들이 주변에 존재하는 식물들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게 만들며, 이로 인한 식물과의 분리된

5) 박중환, 『식물 인문학』, 한길사, 2014, p.88

6) 영과 에너지는 생명력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생명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영에 대한 원래의 정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에너지는 영의 직각력(sentience)이 지휘하는 활동이다. ‘에너지 치유’가 아닌 ‘영의 치유’라는 말을 선택한데에는, 식물 의식 속에 존재하는 영의 활력이 그 움직임을 통해 에너지를 인도한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다.

환경은 인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신체 유지에 필수적인 작용들을 저해한다, 이는 신체기관들의 일관성 감소, 생체 신호교란, 면역고갈, 생기저하 등을 발생시킨다.⁷⁾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받기 위해 우리는 식물과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기관이 소통의 통로를 만든다. 감각의 통로를 통해 식물과 소통하고 치유 받는다.

감각으로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각은 색으로 경험하게 된다, 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연적인 색감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며 심신을 치유한다. 현대에서는 플라워테라피가 등장하며 사람의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었다. 플라워테라피는 색의 에너지의 영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는 컬러테라피에 들어간다. 플라워테라피는 존재의 근본에 대한 문제에 도움이 되며 사람들의 ‘영(靈)’에 에너지를 준다.⁸⁾ 두 번째 감각은 후각이다. 냄새는 기억은 물론이고,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수준에서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이용한 치료는 아로마 테라피가 있는데, 이는 식물의 방향유에서 나오는 냄새를 통해 치유하는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촉각이다. 촉각은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식물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 한다. 식물을 만지게 되면, 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을 주면서 반응한다. 식물의 반응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더 나아가 식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마지막은 미각이다. 미각은 식물을 맛보며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을 경험한다. 각각의 맛을 통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알 수 있다. 이는 식물의 내면에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한다. 결국 우리는 감각의 도움으로 식물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식물의 치유 작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⁹⁾ 치유의 과정은 식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든다. 그러면서 식물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된다.

7) 팸 몽고메리 박준식 역, 『치유자 식물』, 산티, 2015, pp.124-129 참고

8) 유택상, 최은빛, 「컬러테라피로부터 영감 받은 전시 'EXIYT'의 창작에 관한 연구」, No.38, 2018, p99

9) 팸 몽고메리 박준식 역, 『치유자 식물』, 산티, 2015, pp.165-181 참고

연구자에게 있어 민들레 씨는 본인과 깊은 관계에 있는 식물의 역할을 한다. 이 식물은 항상 본인의 주변에 존재하며 주의를 끌었고, 치유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실, 민들레는 가장 잘 알려진 대중적인 식물이다. 민들레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동화인 ‘강아지 똥’은 그야말로 스테디셀러로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 받고 있으며, 영화에서는 종종 커플들이 민들레 씨를 불며 추억을 쌓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어진다. 또한 민들레는 간에 좋은 효능이 있으며, 오늘날 수많은 화학물질과 독소에 노출된 인간의 간을 치유하는 약재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듯 민들레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널리 인식되어지고 흔하게 발견되는 식물로서 현대사회에 존재한다. 하지만 대중들은 민들레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뽑아야 하는 잡초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도 불구하고 민들레는 언제 어디서나 눈에 띄고 끈질기게 살아 현대문명 속에서 꽃을 피운다. 이 끈질긴 생명력은 현시대의 인간을 치유하고 싶은 민들레의 고마운 의지를 보여준다.¹⁰⁾ 민들레는 연구자의 과거 기억이 남아 있는 식물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도록 만든다. 이에 민들레와 연구자는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

본 연구자는 자본주의의 경쟁사회 속에서 본인의 역할에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존재의 이유에 대해 고민하며 점점 작아지는 자아를 안고 살아왔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생명력을 잃은 자아를 찾으려 시도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의 민들레 흩날리는 공간을 대화의 장으로 만들며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이러한 공간에서 식물과 함께 대화하면서 작품을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고 인간의 삶의 균형, 웰빙, 생기를 회복시키도록 돕는다. 이처럼 생명성의 부여는 경쟁사회에서 작아져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치유한다. 연구자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의미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치유하기 위한 공간을 만든다. 이를 통해 치유 받은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소

10) 팸 몽고메리 박준식 역, 『치유자 식물』, 산티, 2015, pp.336-337 참고

중하게 바라보며 자신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2. 고화(古畵)에 나타난 식물

대부분의 민화는 식물 이미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에 민화¹¹⁾를 통해 식물의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1> <너와 함께해서 좋아>, 종이에 채색, 45.2×37.7cm, 2019



[도판1] 신사임당<초충도> 8폭 중 '양귀비와 도마뱀', 종이에 채색, 32.8×28.0cm, 16세기초, 국립중앙박물관

신사임당의 작품인 **[도판1]**을 살펴보면 과거 화가들의 애정 어린 눈길을 줌처럼 받기 힘든 소재인 풀과 벌레가 그려져 있다. 아마 그녀는 다수의 화가가 추구하는, 연꽃이나 모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화려함 아름다움 대신에 사소하고 하찮은 수박이나, 강아지풀, 곤충과 같은 것들에 소소한 아름다움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호랑이나 용처럼 멋있는 생명 대신 개구리나 쥐와 같은 소

11) 지금까지 전하는 심사임당의 그림 가운데 진작(眞作)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며, 또한 심사임당은 서민의 그림인 민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민화로 묶어 설명한다.

소한 일상적인 생명들을 보다 선호했을 것이다. 즉, 신사임당은 과거 그 당시 주류의 화가들과는 다르게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 자연에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¹²⁾ 뿐만 아니라 화면을 물결법을 위주로 표현한 섬세한 묘사와 품위 있고 뛰어난 색채 감각을 나타내었다.¹³⁾

작가의 작품도 소재부분에서 신사임당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1>에서 나타나는 풀들은 강아지풀 외에 이름 모를 하얗고 흰 풀들이다. 풀들은 일상적 소재가 되어 서로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움을 만든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 했다.



[도판2] 작가미상, <화훼도>중 제1폭, 종이에 채색, 54×65cm, 19세기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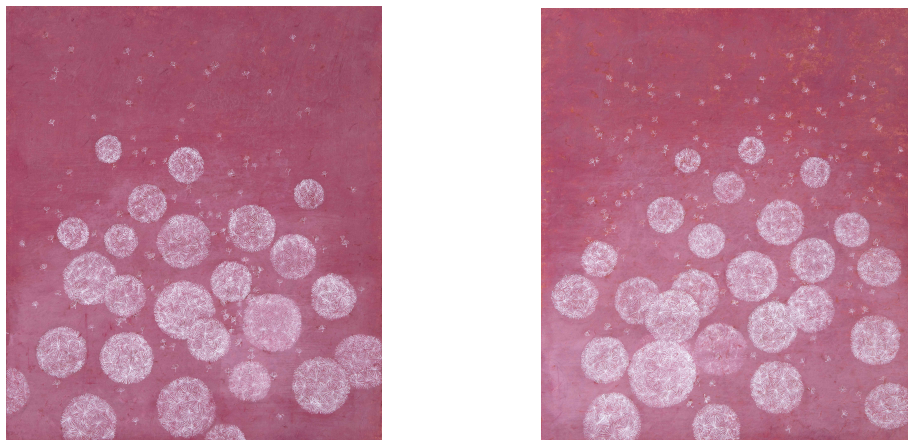
식물의 이미지는 꽃을 표현하는 화훼도에도 보여지게 된다. [도판2]는 흡사 추상적으로 패턴화 된 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화훼도의 일반적인 하단을 채우는 구성에서 벗어나 하단 부분을 완전히 생략하고 꽃을 연속무늬처럼 배치, 일정한 패턴을 통해 화면을 채워나가고 있다. 그림뿐만 아니라 민화 화훼도에서 꽃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 명

12) 정병모, 『민화는 민화다』, 다할미디어, 2017, p183

13) 안휘준, 『한국회화의 이해』,시공사,2000, p183

확하게 그려지지 않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작가의 상상 속의 꽃일 수도 있다. [도판2]는 현대의 낭만주의나 초현실주의미술처럼 작가가 느끼는 감성을 최대한으로 나타내었다. 사실성이나 합리성보다는 활기가 넘치고 흥겨움이 느껴지는 해학의 있는 정서를 중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 그림으로 한국의 풍부한 민족성과 상상할 수 없었던 현대적 특색을 느낀다.¹⁴⁾

이는 연구자의 작품이 소박한 미를 추구하고 일상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연관성이 나타난다. 민화의 식물표현은 화려하고도 소박하고 순박한 표현으로 나타나며 이는 본인이 아름다움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이러한 연관성은 작업에서의 표현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작품2> <좋아서 II> 부분, 장지에 채색, 180x53cm, 2019

<작품2>서도 패턴화된 민들레 홀씨가 보인다. 또한 사실적인 민들레 홀씨의 느낌이 아닌 작가의 상상을 가미한 형태이다. 이러한 상상을 통해 환상 속 공간처럼 느끼게 만든다. 도판2처럼 사실성을 배제하고 상상을 표현함으로써 작품 속에서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된다.

14)유정서<개인소장화훼도축(4첩)>. 월간민화,2020.04.26.
<http://artminhwa.com/%EA%B0%9C%EC%9D%B8%EC%86%8C%EC%9E%A5-%ED%99%94%ED%9B%BC%EB%8F%84-%EC%B6%954%EC%A0%90/>

일본에서도 서민들의 문화 전성기가 있었으며 에도시대에 나타난다. 일본의 에도시대에는 다양한 예술가가 배출되어 회화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황금기를 누린다. 화가는 공방을 만들어 대중의 기호에 맞는 미술품을 생산하여 서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였다.¹⁵⁾



[도판3] 오가타 고린, <추초도(秋草図)>, 18세기, 1730x1541cm, Suntory 미술관 소장

이 시대의 대표 작가 오가타 고린(1658~1716)의 작품을 살펴보고 한다. 그는 채색 장식화의 조형성을 강조하고 수묵화에서는 새로운 화풍을 개척하여 대가의 명성을 더 높였다.¹⁶⁾ [도판3]은 한 쌍의 화면에 국화, 팜파스 풀, 클로버 도라지 등을 포함한 가을 개화식물이 중첩된 형식으로 보여 진다. 이 식물들의 중첩은 보는 사람에게 율동감, 리듬감을 준다. 그리고 사실적 관찰을 통해 자연의 생생함과 신선함으로 재현된다. [도판3]는 화면에서 린파화파¹⁷⁾

15) 김남희, 『일본회화 특강』, 계명대학교출판부, 2016, pp.277-278

16) 김남희, 『일본회화 특강』, 계명대학교출판부, 2016, pp.286-287

17) 17~18세기에 일본 야마토에 전통에 중국의 수묵화 기법을 조화시켜 형성된 에도시대 독창적 장식화이다. 코에추와 소타추에 의해 창립된 린파(린 화파)양식은 코린의 이름을 따 명명됐고, 코린은 형 켄진과 함께 이 양식을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 린파는 물감·금박·은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린파의 전통은 이로부터 백년이 지난 후에 에도(현재 도쿄)에서 코린의 작품을 연구했던 사카이 호이추에 의해 부활됐다.

의 특징인 대담한 추상화와 장식적인 특성에 대한 탐구를 보여준다.¹⁸⁾



〈작품3〉 <위로>, 순지에 채색, 130x65cm, 2018

이처럼 연구자의 작업인〈작품3〉을 보면 강아지풀이 반복되어 구성되는데 이는 리듬감과 운동감을 준다. 이는 [도판3] 에서 나타나는 표현과 같은 효과를 낸다. 또한 사실적 관찰을 토대로 하는 부분도 생동감 있는 표현이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표현은 연구자의 작품 속 풀들이 살아 숨쉬게 하며 공간에 생명성이 주게 된다.

서양 풍경화에서도 식물표현을 볼 수 있는데, 구스타프 클림트의 풍경화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는 빈 분리파¹⁹⁾로 작품으로 인간의 내면적 의미를 미술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다.

18) suntory museum, 「flowering plants in autumn」, google art & culture, 2020.05.05.,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important-art-object-flowering-plants-in-autumn-attributed-to-ogata-korin/5wHjk48sTNP63w?hl=ko>

19) 구스타프 클림트 Gustav Klimt (1862~1918)의 주축으로 낡고 판에 박힌 사상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미술과 삶의 교류를 통해 인간의 내면적인 의미를 미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도판4] <해바라기가 있는 코티지 가든>, 캔버스에 유채, 1010x110cm, 1907, 벨 베데레 궁전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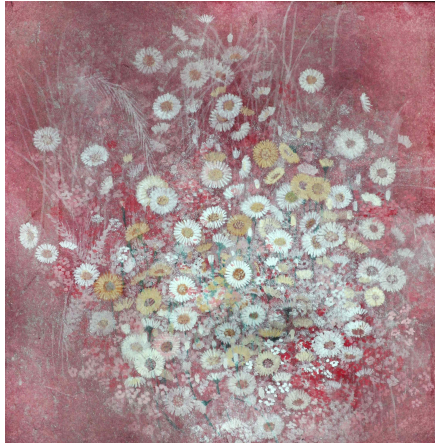


[도판5] 양귀비꽃 들판>, 캔버스에 유채, 110x110cm, 1907, 빈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 소장

클림트의 풍경화 [도판4] 을 보면 식물은 장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의 풍경에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며 오직 식물로만 공간을 채운다. 이러한 구성은 꽃과 풀이 중첩되어 나타나 밀도가 높게 구성되었다. 꽃의 형태는 점묘법과 같은 반복적인 터치와 중첩을 통해 리듬감을 만들어 내며 장식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그는 정사각형이 평화와 균형감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풍경화 모두 정사각형 캔버스에 공간을 표현했다.²⁰⁾ 이러한 풍경화는 클림트 자신에게 있어 휴식과 명상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도판5] 을 보면 붉은 양귀비꽃과 근경의 여러 야생화들 그리고 중앙에 위치해 있는 두 배나무가 원경의 몇 나무들과 함께 숲과 어렴풋이 구별되고 있으며 그것들이 모두 전체의 초록 분위기 속에 녹아 풍부한 색조의 화려한 카펫처럼 보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나무 줄기들이나 배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반면, 상세하게 그려진 수많은 야생화들과 나무들의 형체는 분명하게 구분

20) 박흥규, 『구스타프 클림트:정적의 조화』, 가산출판사, 2009, p.214

하기 힘들다. 이러한 표현으로 작품의 공간은 절대적 고요함으로 채워진다.²¹⁾



〈작품4〉 <좁은 공간 속에서>, 장지에 채색, 20×20cm, 2018

연구자의 <작품4>에서도 정사각형 공간에 점과 원의 반복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은색 분채를 사용한 배경 채색의 장식성은 클림트의 표현 방법과 연관성이 있다. 작가는 자연의 공간을 치유와 사색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받아드린다. 이는 클림트가 휴식과 명상의 장소로 풍경을 그리며 화려한 색으로 장식적 표현을 한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작품3>의 작은 점들의 밀집은 작품을 잔잔하며 고요한 분위기로 인간의 내면적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21) 박홍규, 『구스타프 클림트:정적의 조화』, 가산출판사, 2009, p.220

2. 자아를 찾기 위한 과정과 표현

1) 기억 속 이미지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과 타인(물체)과의 관계에 의해 제공된 기억들을 쌓아간다. 인간에게 있어 기억은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나를 결정짓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작가에게 있어 기억은 곧 상상력과 창의력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²²⁾ 작가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은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기억은 작가에게 중요하다. 죠이스(Joyce, James Augustine 1882~1941)²³⁾는 비코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상상력이란 기억이다’ 라고 간결하게 정의했다. 비코에 따르면 이미지를 위한 지식의 추진력이 바로 기억이다. 기억의 세 가지 측면을 비코(Vico, Giambattista 1668~1744)²⁴⁾는 이렇게 쓰고 있다. “기억은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사물을 기억할 때의 기억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변형시키거나 모방할 때의 상상력이며, 마지막 하나는 그것을 새롭게 전환시키거나 적절한 배열과 관계 안에 자리 잡아 주는 창의력이다.”²⁵⁾ 연구자가 작업을 하면서 어린시절 기억을 떠올리고 그 이미지를 상상하여 작품 속에 창의적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은 지식이나 정보가 획득, 수정, 저장, 인출되는 하나의 능동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감각기억 장치, 단기기억장치, 장기기억 장치의 단계로 처리한다. 여기서 장기 기억장치는 용량의 제한이 없고 장

22) 진정미, 「일상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기억과 상상을 통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5, p.6

23) 아일랜드 소설가, ‘의식의 흐름’이라는 새로운 수법으로 인간의 복잡 미묘한 심리 갈등을 묘사하여, 20세기 심리 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24) 이탈리아 철학자. 데카르트 철학에 반대하여, 행위에 진리 기준을 두고 역사 철학 내지 민족 심리학에 대한 시야를 열었다.

25) 김병선 『이미지와 기억』, 새물결, 2018, pp.160-161

시간 정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일화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로 저장될 수 있다. 일화적 기억은 개인적이며 특수한 경험의 기억을 지칭하며 의미적 기억은 지식을 통한 본질적 기억을 지칭한다.²⁶⁾

기억의 과정으로 자아의 표현을 위해서는 과거에 경험한 특수한 기억의 내용이 필요하다. 이는 일화적 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억은 일상에서 가려져 지나치는 것들을 찾아내어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²⁷⁾ 본 연구자는 교외에서 자라온 어린 시절 기억을 바탕으로 식물 이미지를 떠올려 표현하였다. 이 기억은 본인의 상상을 바탕으로 표현되며, 작품 속 공간 또한 상상으로 구성되어 작품으로 표현된다. 상상되고 있는 어린 시절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미지화 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식물이미지는 일상 속에 무심코 지나가는 잡초나 들꽃이다. 현실의 우리는 잡초나 들꽃들을 아름답게 보지 못한다. 하지만 잡초와 들꽃의 이미지는 아름답게 표현된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기억에서 나온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억은 본인의 고향 풍경에서 시작한다. 고향은 본인이 자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공간이며 식물과 소통하며 치유 받았고 공존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공간을 이미지화 하게 되면서 현재 보지 못했던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알려준다. 즉 기억을 상상하고 이미지화 하는 것은 현재에 가려진 존재의 이유를 알아내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낸다.

2) 타인과 자아의 감정 작용

현대인은 기술의 진보와 대중문화로 발달로 규격화, 표준화되어 고독한 군상으로 전락한다. 이로 인해 자기 고립이 일어나며, 자기고립은 타인과의 충분

26) 진정미, 「일상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기억과 상상을 통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2005, p.6

27) 진정미, 「일상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기억과 상상을 통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2005, p.9

한 교류의 관계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된다.

철학자 미드(Mead, George Herbert 1863~1931)²⁸⁾는 I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보는 자아, Me는 타인이 보는 자아라고 말하며, Me가 세지면서 I가 약해질 때 자기 고립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신의 심리에 있는 내면의 문제가 사회가 영향을 주는 외면적 문제보다 자아를 더 크게 고립시키는 원인이라고 본다.²⁹⁾ 고립은 외로움을 만들고 외로움은 타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인 관계있으며, 세상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복합적 공존으로 보여주고 있다.³⁰⁾

외로움은 공감이라는 감정 작용의 도움을 받는다. 공감(sympathy)은 ‘나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예상하고 동의하는 과정이다. 국내 연구(강창원, 2011)에서 보면 공감은 타인과 자신을 독립적 존재로 보며, 감정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한 후 결국에는 자신에게 다시 오는 것이라 하였다.³¹⁾ 즉 공감은 인지적 과정으로서 자아가 존재하는 심리적 현상인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외로움의 해결을 위해 ‘공감’이라는 심리 작용을 이용해 자아를 표현하고 공감의 심리를 식물에게 투영한다. 식물은 타인으로 해석되며 작품 속에서는 식물과 자아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둘만의 공간은 감정작용을 발생시킨다. 그 결과 연구자는 식물에 대한 공감을 통한 ‘연민’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왜냐하면 연민은 공감의 심리적 작동 원리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³²⁾ 스피노자(Spinoza, Baruch De 1632~1677)³³⁾는 연민을 “타인의 불행에서 나오는 슬픔”,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타인에게 일

28) 미국 사회 심리학자, 철학자. 행동주의적 사회 심리학의 창시자로, 듀이(Dewey.J)등의 영향을 받아 프래머티즘을 주장했다. 저서에 『정신.자아.사회』가 있다.

29) 김미진 「인간 고립 현상에 관한 시각적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학위논문 2007 p.9

30) 정수영 「공감과 연민, 그리고 정동(affect)」, 커뮤니케이션 이론, 한국언론학회 11(4), pp.47-48

31) 김영주, 「외로움 통제소재성향이 1인 가구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동기와 시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공감과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 논문, 2017, p.20

32) 김용환 「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 철학, 76, 한국철학회, 2003, p.161

33) 네덜란드의 유대계 철학자(1632~1677)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물심평행이론 범신론을 제창하였다. 저서에 『윤리학』, 『신학정치론』, 『지성 개선론』 따위가 있다.

어난 불행에서 나오는 슬픔”으로 정의했다.³⁴⁾ 즉 연민의 감정은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함께 느낌으로서 갖게 되는 도덕적 감정이다.³⁵⁾ 흄(Hume, David 1711~1776)³⁶⁾은 연민은 시, 공간상의 거리나 친밀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것은 연민의 감정이 심리적 작동인 공감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아에 대한 관심이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 강하며, 이로 인해 자신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연민을 느낀다.³⁷⁾ 본인의 작품에서는 식물과 자아 둘만이 존재하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서로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고 연민이라는 감정을 발생시키며 그 감정을 더욱 크게 만든다.

타인의 심리를 읽거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직접적 경험과 경험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상상력이 필수적이다.³⁸⁾ 그리고 연민의 감정은 이러한 공감력과 상상력에서 시작된다. 연민은 상상과 타인을 선으로 연결시킨다. 이는 타인을 자아의 집중적 배려 대상으로 만들어주면서 일상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사람은 모두 유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더 쉽게 일어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상상함으로써 연민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자아표현이 경험의 상상을 통한 공감과 연민으로 시작되는 것을 설명한다.

극도로 개인주의, 자본주의 사회인 오늘날 우리는 반복적인 일상, 경쟁으로 인한 고단함을 느낀다. 본인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으며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감이라는 심리가 생긴다. 식물의 상생, 공존하는 삶은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본 연구자는 슬픔을 느꼈으며, 이

34) 정수영 「공감과 연민, 그리고 정동(affect)」, 커뮤니케이션 이론, 한국언론학회 11(4), 2015, p.50

35) 김용환 「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 철학, 76, 한국철학회, 2003 p.161

36) 영국의 철학자·역사가(1711~1776). 로크의 경험론적 인식론을 계승하여 철저한 경험론의 입장에서 종래의 형이상학을 적극 비판, 실체나 인과 따위의 관념은 심리적 연상(聯想)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역사가로서는 계몽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다. 저서에 《인간 오성론》, 《영국사》 따위가 있다.

37) 김용환 「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 철학, 76, 한국철학회, 2003, p.164

38) 김용환 「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 철학, 76, 한국철학회, 2003, pp.164-165.

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했다. 작품은 삶에도 상생, 공존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공감과 연민은 우리가 차마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상생, 공존의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는 함께 상생, 공존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본인은 상상력을 통해 공감과 연민을 표현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야말로 사회가 함께 상생공존 하기위해 필요한 방법이라 말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자기소외를 경험한다. 소외는 ‘어떤 대상에 관해 이질적으로 보이는 과정 또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또는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거나 낯설게 느끼는 상태 또는 과정’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현대사회가 인간성 상실과 물질화의 특징으로 현대를 소외의 시대로 판단했다. 한편으로는 소외는 개인이 살면서 체험하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현상이므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³⁹⁾ 심리학적으로 소외를 정의한다면 “자기와 행동 간의 통합의 상실 혹은 부재”로 정의 한다. 자신의 행동의 낯선 느낌 “은 소외감에 빠지게 한다. 자기와 행동 사이에 통합의 부재는 자기의 ‘행동’ 속에서의 허용적, 자율적 성격이 발견되지 않을 때 나타난다. 소외의 발생은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갈등, 자신과 상황 사이에 갈등, 또 자신과 이상적 자신 사이에 갈등 등을 말한다. 이것들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 느끼게 한다. 여기서 소외는 자기 소외이며 자신과 ‘행동’ 간의 관계 속에서 소외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행동’이 중요해진다. 사람들은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신을 이질적으로 느끼면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자신을 보고 자기소외를 느낀다.⁴⁰⁾ 일상에서 소외를 경험하지만 소외를 인식하고 그 현상 극복하는 일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이것을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자아를 표현

39)민경환,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7(1) 한국심리학회,1993,p.71

40) 민경환,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7(1) 한국심리학회, 1993, p.77

하고자 했다. 이러한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소외를 경험한 것 역시 이질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기소외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 행동을 통해 이질적인 상황을 발견하고 소외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로 개인의 변화와 상황 변형이다. 개인의 변화로는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를 잘 통합하고 상황에 대한 능동성을 기른다면 극복될 수 있다. 상황의 변형은 상황을 자기와 조화되도록 변형시키거나 조화로운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황을 가능한 한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만드는 것이다. 비록 개인이 직면하는 상황이 그 개인의 자기와 갈등적인 상황일지라도 개인의 행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 소외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상황을 만들고 또 상황에 영향을 미쳐 자기와 맞게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억압받는다. 또한 경직성, 의존성, 및 권위주의 등과 같은 개인의 성격에서도 나타나 상황과 연결된 소외를 발생 시킨다.⁴¹⁾ 그러므로 사회적 압력과 소외를 발생시키는 성격들에서 능동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소외, 즉 ‘자기소외’는 작가 능동적 사고를 통하여 벗어날 수 있다. 연구자는 현시대의 경쟁사회가 자신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현재의 상황을 낮설게 느낀다. 이러한 자신과 상황 사이에 갈등으로 ‘자기소외’를 경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기억 속의 상황을 편하게 느끼고 익숙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인은 낯선 상황을 작품을 통해 익숙한 기억 속 상황으로 만든다. 기억 속 상황은 억압 받지 않으며 능동적 표현으로 자기소외를 극복 한다. 작품에서 식물 이미지는 과거의 기억의 상상으로 만들어 진 이미지이다. 그들은 능동적인 이미지로 자유롭게 구성되어 표현된다. 능동적으로 표현된 공간은 자기 스스로가 소외에 저항하도록 도와준다.

41) 위의 글 pp. 81-82

3. 작품의 조형적 특성 및 연구

1) 식물의 조형적 표현

본 연구자는 식물 이미지를 독특한 방식으로 화면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시적 관찰을 통한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일상에서 지나치는 많은 것들을 관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작고 미세한 식물들이 소재가 되어 공간을 구성하고 표현된다. 잡풀, 꽃, 원형의 민들레 홀씨로 타인에 대한 자아의 공감과 연민을 표현하기로 했다. 작품에 나타나는 공간, 색, 형태의 표현들은 작품에서 매우 중요하다.

작품은 잡풀과 꽃의 조형적 구성으로 표현된다. 꽃은 아름답다는 느낌을 말을 탄생시켰고,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아름답다고 인지했다고 한다. 인류문명이 발현하기 훨씬 이전에 식물인 꽃은 존재하고 있었다. 인류 최초 문명을 일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꽃과 나무로 정원을 꾸몄으며, 이들의 정원은 동서양으로 나아가 영향을 주었다.⁴²⁾ 작품 속 꽃은 색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꽃뿐만 아니라 잡풀들 또한 아름답다. 우리가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지나칠 뿐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들은 곡선의 중첩과 아름다운 색을 만들며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들은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만족하고 살아간다. 연구자는 이런 풀과 꽃의 조화를 통해 소박하고 소소한 아름다움을 느끼며 작품을 조형적으로 표현한다.

42) 박중환, 『식물 인문학』, 한길사, 2014, p.18



〈작품5〉 <눈길 닿는 대로2>, 장지에 채색 97.0×130.3cm, 2018

먼저 작품에 표현된 색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색은 뇌와 연결되어 기분과 감정 변화에 책임이 있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한다.⁴³⁾ 이러한 색의 심리적 특징을 이용해 본인이 일상을 대하는 심리를 표현했다. 즉, 색의 표현은 일상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 〈작품5〉는 작고 예쁜 들꽃들이 잡풀들과 함께 화면을 구성한다. 이는 강렬하고 화려한 꽃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보이게 한다. 본 연구자는 작품 속에 꽃을 표현하지만 작아서 아무도 모르게 지나치는 작은 꽃들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작은 꽃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은 존재들이며 우리를 치유하는 고마운 존재들이다. 이러한 존재를 찾아내어 집중시키기 위해 색으로 꽃과 땅의 명도, 채도 차이를 준다. 이 작품 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에서 흰색의 등장한다. 흰색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순수함, 깨끗함, 그리고 중립을 투영하며 정신적 투명성의 효과를 가진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청소하도록 도와주며 생각과 행동을 정화하게 한다.⁴⁴⁾ 이러한 표현은 컬러 테라피적 역할을 하며 정신을 정화시켜 자신을 치

43) 박종빈, 「색상이 사용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22권 4호,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019, p.157

유 할 수 있다. 이러한 흰색의 사용은 작고 알아봐주지 않는 꽃들과의 소통의 공간을 만들며 정신적 치유를 받게 한다.



<작품6>. <좋아서>, 장지에 채색, 100×80.3cm, 2019

44)박종빈, 「색상이 사용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22권 4호,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019, p.159



〈작품7〉 <바람소리가 날 위로 한다.>, 장지에 채색, 130x70cm, 2019

〈작품6〉는 화면의 대부분의 면적이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노란색은 행복을 의미하며 심리적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준다. 즉 작가는 배경 색을 이용하여 심리적 표현을 한다. 노란색은 과거에 식물에게 느꼈던 행복을 나타낸 것이며 현재의 삶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나아가고자하는 바람을 담는다. 또한 작가는 대비를 통한 심리적 표현도 했다. 〈작품7〉에서 꽃들의 색은 각자 자신의 색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가장 돋보일 수 있는 보색관계로 표현되었다. 주제가 되는 꽃은 보라색, 보조하고 있는 꽃은 노란색으로 표현함으로써 보색대비를 주어서 꽃에 주목성과 선명성을 준다. 장미처럼 강렬하진 않지만 잔잔하고 무시할 수 없는 집중력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집중은 과거의 본인이 강렬하게 느꼈던 꽃의 이미지의 표현이며 일상을 지나칠 수 없게 만들기 위함이다. 반면에 배경을 보면 희색을 혼합하여 옅은 색을 만들어 대비를 줄였다, 이러한 배경 표현은 상상하고 있는 본인의 기억을 나타내며 꽃의 아름다움을 더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신비스러운 표현은 기억 속 식물의 이미지와 현재 일상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색 표현뿐만 아니라 형태의 특징도 보여 진다. 민들레꽃의 홀씨로 표현되는 조형적 원형의 형태가 그림에 나타난다. 작품에서 원으로 표현된 민들레는 과거, 현재에도 연구자가 소통하고 치유 받는 존재이기에 편안하고 안전감을 느끼며 에너지를 주는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유로 원형을 그린다. 원은 제한과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정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반대로 퍼져 나오는 에너지를 상징한다면 동적인 운동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원은 이 두 에너지가 동시에 있으며 원의 조형적 표현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현상과 운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⁴⁵⁾ <작품6>, <작품7>을 보면 작품 속 민들레는 영과 에너지로서 원의 형태로 나타나 자아를 치유하고 있다. 두 작품에서 원은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반복은 에너지를 만들고 정지된 화면 안에 시간성, 공간성을 주어 공간에 생명력을 준다. 또 다른 세계를 인식하게 만들고 리듬감과 질서로 서로를 유기적으로 형성되게 만듦으로써 사람들에게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작품6>, <작품7>의 원형은 식물들의 주변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다. 이는 능동적인 행위인 공감과 연민을 의미하며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현재 일상에서 자아를 회복하고 소외를 극복하게 된다.

45) 김가영, 「생명현상에 나타나는 반복과 확산에 의한 원의 조형성 연구-작품제작을 중심으로」, 기초 조형학연구 17권5호, 한국 기초조형학회, 2016, p.52



〈작품8〉 <내 품에 안겨>, 장지에 채색, 100x80cm, 2019

원형은 밀집된 형태로도 존재한다. 〈작품6〉와 〈작품7〉와 다르게 〈작품8〉은 원형의 민들레 홀씨가 풀들 주변으로 밀집된 형태로 등장한다. 원의 밀집은 동적인 느낌보다는 정적인 느낌이 든다. 연구자는 민들레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강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꼈다. 민들레는 원형의 밀집된 표현을 통해 연구자와 가깝고 깊은 소통을 하며 위로하고 있다. 또한 원형은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작은 원들이 밀집되어 큰 원을 형성함으로써 하나의 유기체인 사회를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 개인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동시에 강해진 자아를 만들어 사람들을 치유한다.

2) 중첩 효과에 따른 공간감

중첩에 대해 케페스(G.Kepes 1906~2001)⁴⁶⁾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만일 하나의 공간 형태가 다른 형태를 가려서 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뒤에 가

46) 헝가리 출신 화가, 디자이너, 미술교육가

리어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겹쳐있는 형상을 볼 때 첫 번째의 것, 즉 맨 앞쪽의 것은 두 개의 공간적 의미 즉 그 자체와 그 자체 밑에 존재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조지 케페스의 설명은 또 표면에 가려져 볼 수 없는 형상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공간적 차이와 깊이를 경험하게 된다.⁴⁷⁾ 이는 중첩이 우리에게 주는 깊이감과 공간감을 설명해준다.



〈작품9〉 <어느날 I>, 장지에 혼합재료, 116.8x91.0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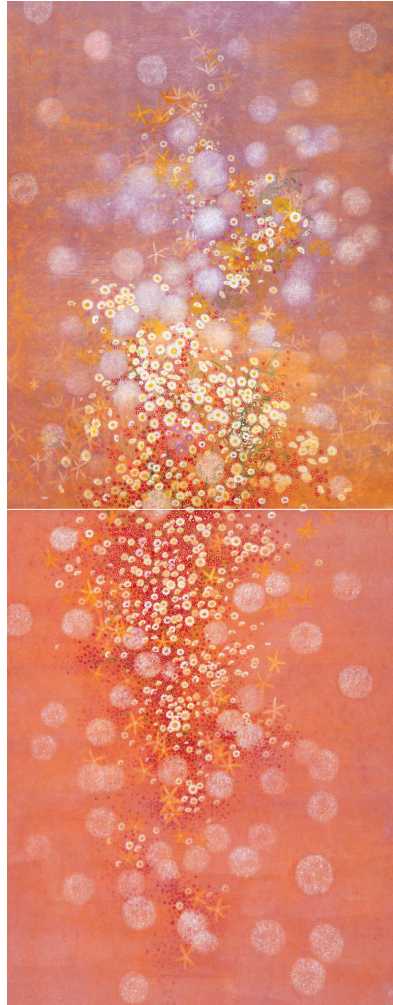
〈작품9〉 강아지풀과 이름 모를 잡초들을 그린 초기 작업이다. 그림 속 식물은 일상적 식물로 나타나며 식물들은 각자 자유롭게 화면을 구성한다. 내면의 자아의 표현을 위해 〈작품9〉은 미시적 관점으로 시작한 그림이며 강아지풀의 구조적 특징을 사실에 기초하여 그대로 옮기려 노력했다. 사실적 표현은

47) 김선경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첩(overlapping)효과의 미적 특성」,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학위논문, 2007, pp.6-7

연구자의 시선과 식물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나타낸다. 이는 작품에서 선(線)으로 표현된다. 선(線)은 형태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며 이러한 선의 중첩과 반복은 풀의 조형적 관계를 더욱 더 강하게 만든다. 이는 풀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공간감을 주게 된다. 또 그림에 표현된 선(線)은 불규칙한 강약을 이용한 반복과 중첩을 통해 공간을 리듬감과 운동감으로 채우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즉, 선(線)의 조형적 묘사와 중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새로운 공간을 통해 아름다운 자아의 세계를 만든다.



<작품10> <봄의 시작>, 장지에 채색, 130.3x97.0cm, 2019



<작품11> <좁은 공간을 나와서>, 장지에 채색, 72.7x181.8cm, 2019

중첩은 선뿐만 아니라 면에서도 사용된다. 면의 붓질은 서로 다른 색이 겹쳐지도록 만들며, 밑면 색에 밀도가 생기도록 만듦으로써 깊은 공간감을 만든다. 이러한 중첩은 작품의 배경 표현에 사용된다. 배경은 자아가 식물과 소통하고 치유 받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편안한 색을 중첩하여 쓴다. <작품10>의 배경에서는 밑색은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녹색을 선택하고 그 위에 부분적으로 치유를 의미하는 흰색을 중첩시킨다. 이러한 녹색과

흰색의 반복 과정은 강약이 자연스럽게 생겨나 밀도 차이를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밀도차이는 두개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하나는 흰색 보다 녹색의 밀면이 많이 보이도록 풀과 꽃을 밀집시켰다. 나머지 하나는 흰색을 많이 중첩시켜 여백과 같은 표현을 했다. 본인은 식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식물세계와 인간세계로 공간을 분리시켜 이를 표현하였다. 밀집된 공간은 식물의 세계이며 여백과 같은 흰색의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표현한다. 두개의 공간은 자아와 식물이 공존하면서 새롭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된다. 또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의 존재를 투입하고 상기함으로써 그들 간의 관계를 자유롭게 변화시킨다.

<작품11>도 두 개의 공간을 표현했는데 이는 중첩된 꽃 이미지의 밀도의 차이로 두 공간이 나뉜다. 꽃이 없는 부분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또 이러한 밀집은 Z자의 모양으로 구성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 한다. 두 공간들 사이에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에 존재하는 새로운 관계를 인식하고 받아들게 된다. 즉, 중첩을 통한 공간감 표현은 우리가 일상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Ⅲ. 결 론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느 날 반복된 일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러한 낯설음은 곧 소외로 이어져 사회 속 개인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현재의 일상과 기억 속 일상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개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능동적 자아를 찾게 된다. 연구자 본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대부분 소외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외를 극복하고 능동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기억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기억은 현재의 자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상력과 창의력의 바탕이 된다.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경험을 묘사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자아를 아름답게 표현한다. 따라서 기억의 이미지는 일상생활에서 자아의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거리를 걷다보면 이름 모를 잡풀들이 피어있다. 연구자는 어린 시절 시골길 풍경의 기억을 아름답게 상상하며 주변 가까이 공존하고 있는 식물과 깊은 감정 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관계는 현재의 일상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상상하고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타인의 경험도 상상하게 한다. 이는 본인에게 공감과 연민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여 자기소외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즉, 거리의 잡풀들은 과거 연구자의 어린 시절 기억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였으며, 자기소외를 극복하게 만든 치유자로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문명에 갇혀 사는 현대인들은 길가에 힘겹게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운 잡풀들에게 눈길을 둘 시간을 갖지 못하며 그것들에게 치유 받지 못하고 자기소외를 경험한다. 현대사회의 반복되고 바쁜 환경은 사회 속의 개인을 점점 희미하고 수동적인 객체로서 존재하도록 만든다. 이에 연구자는 수동적인 개인에게 공감과 연민을 느꼈으며, 여유가 없는 현대사회 속에서 능동적인 자아를 찾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를 위해 본인은 풍경을 미시적으로 해석하여

잡풀들을 화면에 채워 넣어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이 방법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풀들에게 고정시키게 만들고 그 속에서 일상의 여유를 느끼도록 만든다.

연구자는 기억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상 안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독창적인 형식을 이용하여 화면 속에 자아를 표현한다. 여기서 연구자는 꽃의 조형적인 표현을 통해 자아를 나타낸다. 관련 연구를 통해 작품에서 나타나는 식물의 색과 원의 형태의 심리적 역할을 알아내었다.

이를 토대로 자아의 세계를 만들었고 공간감을 표현하여 작품에 대한 집중력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자는 자아를 표현하는데 있어 식물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자아를 보다 더 잘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한정된 재료의 표현에 한계를 느꼈다. 평면적 재료의 표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간감을 내기 위한 표현방법을 보충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느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앞으로는 평면적 재료뿐만 아니라 입체적 재료를 사용하여 좀 더 입체적인 공간을 표현하고자 한다. 앞으로 공간감에 대한 표현의 보충 연구가 도움이 되어 보다 발전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남희, 『일본회화 특강』, 계명대학교출판부, 2016
- 김병선, 『이미지와 기억』, 새물결, 2018
- 박중환, 『식물 인문학』, 한길사, 2014
- 박홍규, 『구스타프 클림트:정적의 조화』, 가산출판사, 2009
- 안희준,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 정병모, 『민화는 민화다』, 다할미디어, 2017
- 팸 몽고메리 박준식 역, 『치유자 식물』 산티, 2015

<논문>

- 김미진, 「인간 고립 현상에 관한 시각적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학위논문, 2007
- 김선경,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첩(overlapping)효과의 미적 특성」,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학위논문, 2007
- 김영주, 「외로움 통제소재성향이 1인 가구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동기와 시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공감과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 논문, 2017
- 진정미, 「일상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기억과 상상을 통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5

<학술지>

- 김용환, 「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 철학, 76, 한국철학회, 2003
- 민경환,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한국심리학회, 1993
- 박종빈, 「색상이 사용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22
권 4호,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019
- 유태상, 최은빛, 「컬러테라피로부터 영감 받은 전시 'EXIYT'의 창작에 관한
연구」, No.38, 2018
- 이정교 외1, 「공간 디자인에서 색채 대비에 의한 시각적 연속성에 관한 연
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5권 2호, 한국공간디자인 학회, 2016
- 정수영, 「공감과 연민, 그리고 정동(affect)」, 커뮤니케이션 이론, 한국언론학
회 11(4)

ABSTRACT

A study on self-expression through the botanical images

—focusing on the own work—

Hur, Hee Young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ego of the modern man obscured by society exists without meaning. However, the meaning of the self in the world is clear when it is subjective, and the individual can feel the meaning by existence itself. Accordingly, the researcher will try to find the meaning of the hidden ego through the plant images, and to study the process of finding the ego and expression through it.

Plants repeat epigynous and coexistence in the woods and teach humans what 'beautiful coexistence' is. In this study, the plant is recognized as the image of 'Soul (ghost)', and it is regarded as doing 'healing work' by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human beings. In this regard, the researcher created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d expressed life in the work by creating a space where plants and

humans can communicate. The vitality of these spaces serves as a space to heal modern people as well as themselves and makes people express the beauty of human life and value their daily lives. In the process of finding and expressing oneself, starting with discovering alienation arising from the isolation of modern society, we express self-ego with compassion and empathy acting actively to overcome the problem. In order to make this self-expression into an image, the figure of memory is summoned and the work is expressed with the image of the plant experienc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this process, the original image of the plant was completed by expressing the plant's image uniquely.

The significance and direc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motional act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coexistence and healing of plant images was studied, and based on this, memories of the past were expressed as original plant images. This expresses the true self and overcomes alienation to look at everyday life meaningfully. In the future, I will find various methods and use them as a means of expression, and I hope that through the work, viewers will find the meaning of existence in their daily lives and live independently.